

무주반딧불축제 경쟁력 강화 탄력

‘디지털 콘텐츠 제작’ 문화관광축제 과제 지원 사업 대상 선정

무주반딧불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2021 문화관광축제 경쟁력 강화 과제 지원 사업’ 대상이 돼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관광축제 경쟁력 강화 과제 지원 사업’은 문체부가 축제의 지속 가능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군은 ‘축제 관광 상품개발’ 부문에 ‘무주반딧불축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주제로 지원해 최종 선정이 됐다.

‘무주반딧불축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은 교육(축제 주제관 교육영상)과 홍보(축제 사전홍보 영상)에 활용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군은 축제의 상징인 반딧불이(생애)를 비롯해 서식지 등 자연환경을 담은 다큐멘터리(30분 내외)를 만들 계획이다.

무주군청 관광진흥과 관광육성팀 유성현 팀장은 “영상제작이 축제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 “무주반딧불축제는 ‘직접 재



무주군 반딧불이 신비탐사.

정지원 총료 문화관광축제’로서 지원을 받는 것인 만큼 2년 연속 대표축제를 지낸 축제의 명성을 확인시키고 20년 이상 개최된 축제다운 연륜까지 보여줄 수 있는 제작물이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반딧불축제는 2018·2019

2년 연속 정부지정 문화관광 대표축제, 2020 명예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된 바 있으며, 23회를 개최해오는 동안 반딧불이 신비탐사 등 반딧불이 체험을 중심으로 한 지역문화, 놀이, 공연 프로그램이 진행돼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보급

독거노인가정 화재·가스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연결

장수군은 28일까지 독거노인가정을 대상으로 ICT기술을 기반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규장비’를 설치·교체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태블릿PC 기반의 게이트웨이,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등의 센서로 구성된 장치로, 119에 연결돼 화재 및 가스 사고 등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상황을 알릴 수 있다.



이번 설치되는 기존 대상에 노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까지 확대해 300

세대에 차세대장비를 설치하고, 하반기에는 독거노인가정을 대상으로 1,307대 장비를 추가 교체·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또 이번 장비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인 생활지원사의 활동과 연계해 코로나19시대에도 비대면 1:1 생활교육 및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조금현 주민복지실장은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보급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부부의 날 맞아 모범부부 표창패 수여

진안군은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모범부부를 선정해 시상했다.

군은 모범부부를 발굴하고 격려해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과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올해 첫 시행하는 모범 부부상은 읍·면장 추천과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12쌍의 부부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표창장을 받은 부부는 ▲진안을 정재승, 정상연, ▲진안을 김병렬, 나수민, ▲용담면 강창봉, 국정순, ▲안천면 임석주, 타나폰인카에우, ▲동향면 오우근, 도티화, ▲상전면 이상엽, 고경순, ▲백운면 전진기, 서금옥, ▲성수면 강성환, 최기순, ▲마령면 안태일, 김연아, ▲부귀면 이준철, 연정옥, ▲정천면 임삼규, 강광연, ▲주천면 박정우, 지은정 부부 등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이들의 주요 공적은 활발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사랑과 신뢰의 부부애로 배우자의 병환 극복, 다문화가정으로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소통과 배려로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기여 등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세계 유일의 마이산 부부 봉처럼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진안군은 가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코로나19 확산방지 총력

방역수칙·소독이행 여부 등 방역상황 점검 강화

진안군은 20일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전국적 확산세가 이어지자 코로나19 방역활동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지역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체계가 다소 느슨해지고 있다는 판단하에 각 실과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소독이행 여부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업소는 일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특히 어린이날, 어머니날, 석가탄신일 등 행사가 많은 가정의달 5월을 맞아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식당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집중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14일부터는 내·외국인 일용근로자 고용 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현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무료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사각지대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매일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방역수칙 준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 및 방역활동을 지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힘든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관 단체는 물론 전 군민이 힘을 모아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군민 모두 생활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백신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22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펼친다.

무주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 만전

무주군이 관내 놀이시설을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군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22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펼친다. 어린이 놀이 시설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들의 생명을 보호 하자는 취지다.

이번 안전 점검은 어린이집 놀이터 및 마을 주변 공원 내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점검반을 편성, 현장 위주로 점검했다. 이번 안전 점검을 통해 놀이기구, 표지판 파손 및 관리주체 법적 의무이행 여부 등을 살핀다.

또 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안전교육과

교육일정을 안내하고 안전보험 가입 여부 등도 조사를 펼친다. 놀이시설에서의 사고예방 유의사항과 국민행동요령도 홍보하기로 했다.

군은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현장 보완할 계획이며, 낡거나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은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2021년 어린이놀이시설 전수 점검을 통해 안전 관리를 적극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재난과 오해동 과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 아이들의 창의성과 사회성을 배우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아이활동이 늘어나는 계절에 아이들이 마음껏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여름철 침수·장마 피해 대비 하수관로 점검

장수군 시설관리사업소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및 장마 피해 대비를 위해 28일까지 하수관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호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읍·면의 저지대 및 침수취약지역 8곳의 하수관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주로 하천변 맨홀 점검 상태 확인, 중계펌프장 맨홀 스크린 점검, 침사퇴적구간 파악 및 준설 작업 등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군은 6월내에 준설 등 보완이 필요한 지역에는 정비를 완료하는 등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성현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작년 유독 심했던 집중호우로 인하여 올해는 철저하게 사전 대비하여 군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축산농가 가축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진안군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전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자연재해, 화재,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 시설 피해 발생 시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가축재해보험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피해 발생 시 손해액의 60~100%까지 보상을 한다.

보험가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진안군은 올해 도내에서 가장 높은 지방비를 편성해 농가당 최대지원 금액을 타 시·군 보다 건당 1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진안군 축산농가의 가입비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전춘성 군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축산농가에서는 보험가입에 관심을 갖고 가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